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와 학업스트레스 연구

장 위 천(인하대학교 박사과정) · 이 완 정(인하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와 학업스트레스를 비교하여 양국 아동의 생활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 인천지역 및 중국 요녕성 단둥시(中國 遼寧省 丹東市)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을 각 200명씩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도구는 방과후 생활실태에 대한 윤매자(2002)의 도구와 부모 관련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박용식(1996)의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중국아동에게 사용할 중국어 판 설문지는 연구자가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국인에게 이를 다시 한국어로 역번역하도록 하여 초판 한국어 설문지와 내용이 동일한지 점검하였다. 설문지는 방과후 생활실태, 여가요구,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분석에 사용된 최종 자료는 초등학생 369명, 중학생 377명으로 총 74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X²검증,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Duncan 사후검증으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문화집단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아동은 방과후에 집에서 숙제·예습·복습을 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고 한국 아동은 학업보충·취미학원으로 가는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중국 아동은 TV시청시간이 2시간이하라 응답한 아동의 비율과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는 아동의 비율이 한국 아동보다 높았다. 둘째, 비교문화집단 아동의 여가에 대한 요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중국 아동은 친구와 함께 숙제나 공부를 주로 하지만 한국 아동은 게임·채팅·전자오락을 많이 하였다. 여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조사한 질문에 중국 아동은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한국 아동은 충분한 용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여가의 효과에 대해 한국 아동은 중국 아동에 비해 여가를 명랑하고 즐거운 것, 생활과 공부에 활력을 주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는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방과 후 생활실태 중 컴퓨터 사용시간 및 컴퓨터 활용방법에 따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방과 후에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나 여가의 효과에 대한 지각에 따라 아동의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한·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왔지만 이들의 방과 후 생활실태나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한·중 양국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 및 학업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한·중 아동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문화비교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